

자연미의 인식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 난(蘭) 모티브를 중심으로 -

*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
학과 강사

박 현 주*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자연과 조형예술
 - 2. 자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현대복식디자인
 - 3. 난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 III. 작품제작
 - 1. 작품제작방법
 - 2. 작품해설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현대복식은 대량생산에 의한 기계 종속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예술성, 독창성, 고부가가치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시대적 감성에 부응하는 고도의 감각과 기술을 바탕으로 복제되지 않은 자연미의 표현과 차별화된 수공예적인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은 자연미의 표현을 위하여 꽃, 나비, 난과 같은 모티브를 통하여 무한한 창작 아이디어를 얻어 독창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의상에 있어서 난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한 예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와 기품 있는 색채를 지닌 난(蘭)을 모티브로 하여 이미지에 맞는 소재, 표현기법의 개발을 통해 실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겸비한 고부가가치 현대복식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연과 조형예술과의 관계를 살피고, 자연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의 조형활동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자연의 이미지를 응용한 현대의상디자인 작품을 정리·분석하였다. 또한 작품의 모티브인 난의 종류와 특성 및 형태를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통해 연구하였으며 난의 형태를 의상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총4점의 실물작품을 제작하였다. 소재표현의 방법은 염색(Dyeing), 직조(Weaving), 크로셰(Crochet), 퀼팅(Quilting), 비즈자수(Beads embroidery), 기계자수(Machine embroidery), 아트 플라워(Art flower) 등의 수공예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볼륨감과 표면의 재질감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이처럼 다양한 소재표현기법의 영역을 확대시켜 조형예술로서도 가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연과 조형예술

자연이란 「볼 수 있는 현상의 세계」¹⁾이며 모든 예술의 근원이다. 자연은 예로부터 인간의 관심대상이자 생활의 터전이었으며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장엄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늘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유발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갖고 끊임없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미를 표현해온 예술가들은 그 관찰을 통한 감동을 자기만의 독창적인 표현에 의해 예술로 승화시켜왔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정밀한 관찰로 지금까지 묘사된 적 없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특징을 발견하여 독창적인 양식으로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자연은 자연현상 그 자체로 복사되고 재현되는 수준, 다시 말해서 모방의 단계가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과 정신에 의해서 형태가 생략되거나 강조되고 해체되거나 응집되면서 화면에 구성되는 표현으로서의 새로운 대상이 되는 것이다.²⁾ 또한 특징적인 구조를 발견하여 대상물을 어떠한 단순한 형태로 집약시킬 것인가를 고찰하여 형태를, 재형성하고 대상물의 형태를 새로운 질서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 바로 조형예술인 것이다.³⁾ 이와 같이 자연은 예술가에게 표현의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의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형예술은 건축·회화·조각·공예·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작활동의 소재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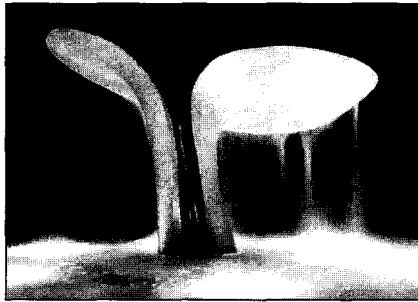
<그림1>은 자연의 형태를 응용한 환경조형물으로써 조형미를 극대화시키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환경예술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미적 형식으로서의 자연의 형태는 건축이나 회화에서 많이 응용되었으며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되어 오고있다. <그림2>는 나무를 모티브로 한 가구디자인으로써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인공미를 지양하고 좀 더 자연의 이미지를 강조한 작품이다. 또한 각종 장신구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에 더할

1) H. 리이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역, 을유문화사, 1968, p226

2)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81, p28

3) 미학연구회, <미학>, 문영사, 1983, p147

나위 없는 좋은 소재로써 사용되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은 오랜 시간동안 디자인의 모티브로 사용되어 왔으며,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에게 조형예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연의 법칙성을 관찰함으로써 조형사고의 방법을 얻을 수 있는 소재인 것이다.



〈그림1〉 Anders Tinsdo, 1988
(출처: Design from Scandinavia)



〈그림2〉 Daniel Mack
(출처: The Guild No.9)

2. 자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현대복식디자인

자연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기에 많은 디자이너들은 자연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갖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관찰을 통한 감동을 자기만의 독창적인 표현에 의해 예술로 승화시켜왔다.

복식에 있어서 자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창작활동은 아르누보시대부터 두드러졌으며, 사실적 묘사에서부터 과장, 생략, 단순화의 과정을 통해 추상적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다.

〈그림3〉은 티에리무글러(Thierry Mugler) 작품으로 곤충을 모티브로 하여 조형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는 꽃, 나비, 곤충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많은 디자인들을 Haute Couture Collection에 선보였다. 〈그림4〉는 콰미지의 작품으로 밀짚, 등나무, 닥섬유 등의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전원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한 예술의상(Art to wear)이다. 또한 오늘날 자연을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의 개념은 단순한 의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토털 코디네이션화 되어 신발, 모자, 가방, 가발, 머리장식 등의 액세서리에서 언더웨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복식에 있어서의 자연의 이미지는 디자이너에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그림3〉 Thierry Mugler
(출처: Book Moda No.29, 1997)



〈그림4〉 광미지
(출처: '97 Kwangju Bien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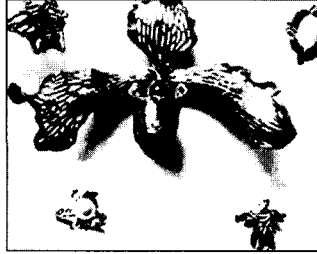
3. 난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난은 종류마다 꽃과 잎, 줄기의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특징이 서로 다르며 독특한 형태와 색채를 지닌 단자엽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난은 다양한 형태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같은 종류라도 색과 형태가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끊임없는 변화와 생명력을 지닌 난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난은 다른 식물과 달리 정신적인 수양도 쌓을 수 있는 정서적인 식물이며, 예로부터 고귀하고도 자태가 아름다운 꽃으로 여겨 그림이나 자수의 대상으로 많이 이용되어져왔다.⁴⁾ 기품과 호화로움이 넘치는 난은 소묘, 수채화, 유화, 수묵화, 판화 등과 같이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평면에 표현하는 회화에서부터 공간 속에 입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소, 실생활에 이용하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4) 정한원, 〈자연과 蘭〉, 오성출판사, 1999, p3

〈그림5〉는 난을 모티브로 한 공예품으로써 그 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머리핀, 펜던트, 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신구의 모티브로도 애용되어졌으며, 부케나 코스쥬, 직물에 사용되는 문양으로도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또한 예술의상의 모티브로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에게도 애용되었다. 〈그림6〉은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의 작품으로 긴 꽃줄기에 꽃이 줄지어 피어 마치 나비가 날고 있는 듯한 황홀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팔레놉시스(Phalaenopsis)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예술가들은 난의 다양한 형태와 색채 속에서 무한한 창작 아이디어를 얻어 이상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난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요소가 기능적·구조적 측면에서 의상과 결합되었을 때 자연의미를 보다 더 승화시켜 성숙된 디자인으로 응용될 수 있다.



〈그림5〉 Orchid Pendant
(출처: The Paris Salons Jewellery)



〈그림6〉 Philip Treacy
(출처: '01 F/W Couture)

Ⅲ. 작품제작

1. 작품제작방법

다양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가진 난(蘭) 중에서도 조형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모티브를 선택하여 의상에 접목 시켰다. 이러한 조형예술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이에 따른 실물작품은 총4점이며 원피스 드레스 2점, 자켓과 탑, 스커트 1점, 자켓과 스커트 1점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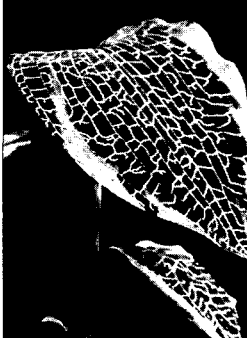

전체적인 실루엣은 난의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약간의 과장된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난의 형태를 전체적 이미지로 응용하거나, 재 조합과 변형을 통해 부분적으로 응용하기도 하였다.

작품제작에 사용된 색상은 화려한 오렌지(Orange), 그린(Green)을 이용한 보색대비의 조화와 자연의 푸르름을 상징하는 그린(Green)을 사용한 유사색의 조화를 통해 색채그라데이션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의 순수한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작품의 소재로는 실크, 노방, 인견사, 아크릴사, 지사, 깃털, 비즈 등을 사용하였으며 조형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동선을 이용하였다. 또한 작품에 사용된 기법으로는 크로셰, 직조, 퀼팅, 염색기법, 등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조형형태구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비즈자수, 기계자수, 아트플라워 등의 장식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한 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에 사용된 모티브, 구성, 소재, 색상, 기법, 모티브 형태의 비교 분석은 〈표1〉과 같다. 이처럼 난의 형태에서 나타난 조형성을 의상에 응용,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실용성과 독창성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속성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현대 미술의 상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 1) 작품분석

No	난(蘭)의 종류	구성	소재	색상	기법	모티브 형태
I	디그비아나 (브라사볼라 속)	Three-piece Dress (Jacket+ Top+ Skirt)	지사, 아크릴사, 고무사, 동선, 비즈, 술장식	Ivory	직조 기법, 비즈 자수	
II	에비네움 (앵글로컴 속)	One-piece Dress	인견사, 동선, 깃털, 노방	Citron Yellow, Dark Olive Green	직조 기법, 염색 기법, 크로쉐 기법, 아트플라워 기법	
III	카고매란 (사철란 속)	Two-piece Dress (Jacket+ Skirt)	마실크, 인견사	Yellow Green, Viridian	염색기법, 기계자수	
IV	코키네아 (마스데발리아 속)	One-piece Dress	공단 실크, 인견사	Green, Orange	퀼팅기법, 염색기법, 기계자수	

2. 작품해설

작품1은 백색의 꽃으로 다육질인 잎과 큰 꽃술이 특징적이며 잎은 풀모양인 디그비아나(Digbyana)의 형태를 칼라(collar)에 적용시킨 디자인이다. 이러한 난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아이보리(Ivory)색의 지사, 아크릴사, 광택 필름사를 이용하여 평직하였다. 또한 디그비아나의 풀모양 잎을 표현하기 위해 수술로 장식한 후 크리스탈 비즈로 화려하게 수 놓았다. 부조적인 형태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탑(Top)부분에는 텐션(Tension)이 같지 않은 지사와 고무사를 경사에 걸고 아크릴사와 광택필름사를 위사로 하여 평직 함으로써 제작한 후 자르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고무사의 탄성을 이용하여 고무줄 박기 기법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작품2는 풀 모양이 큰 것이 특징인 에브로네움(Eburneum)의 형태를 장식적인 아트플라워 기법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꽃의 형태는 인견사와 동선을 크로셰(Crochet)하여 자유로운 형태변형이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였고, 잎은 깃털을 염색하여 사용함으로써 화려한 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소재구성에 있어서는 인견사와 에나멜동선을 사용하여 제작 하였으며,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린(Green)계열의 색으로 그라데이션(Gradation)효과를 주어 염색하였다.

작품3은 야생란의 일종으로 독특한 무늬가 특징인 카고매란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야생란의 강인한 생명력을 의상에 접목시키기 위해 거친 마실크를 소재로 하여 염색하였으며, 안료를 이용하여 난의 무늬를 사실적으로 그려 넣었다. 무늬의 표현을 강조하고자 은색의 인견사를 이용하여 기계자수로 수놓았다. 기계자수기법은 양감을 드러내는 부조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화려한 은사의 사용은 장식적인 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작품4는 주홍색 대륜화로 아름다운 코키네아(Coccinea)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코키네아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공단실크에 구타염으로 그라데이션효과를 주어 염색하였고, 솜을 넣고 누비는 퀼팅(Quilting)기법을 이용하여 볼륨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구타선 위에 기계자수기법을 이용하여 구타선을 효과적으로 없앴고 동시에 볼륨감과 리듬감을 극대화 시켰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점점 확대되는 메메이드실루엣(Mermaid Silhouette)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코키네아의 형태를 의상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적용시킴으로써 꽃이 피어나는 듯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

IV. 결 론

21세기는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의 향유를 통해 생활여건은 편리해졌으나 주거 환경은 오염되고, 푸른 산야는 시멘트 숲으로 변화여감에 따라 문명의 이기와 강박감에 시달려 인간의 자연에 대한 향수와 동경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복식에 있어서도 대량생산으로 인한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복제되지 않은 자연미의 표현과 독창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수공예적인 디자인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류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모체인 자연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생명력을 지닌 난(蘭)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조형예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재와 조직개발에 따른 질감을 연구하여 예술적 조형감각을 지닌 현대의상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미의 바탕을 둔 4점의 작품제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다양한 형태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같은 종류라도 색과 형태가 다른 난은 디자인 모티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염색기법을 통한 보색대비의 조화, 유사색의 조화를 색채 그라데이션 효과로 나타냄으로써 화려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색감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염색(Dyeing), 직조(Weaving), 크로셰(Crochet), 퀼팅(Quilting), 등의 수공예적인 표현기법을 통한 미의식의 표출로 고부가가치 의상을 창조하여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미적 욕구충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즈자수(Beads embroidery), 기계자수(Machine embroidery), 아트 플라워(Art flower)등의 장식적인 기법은 조형예술의 성격으로 그 표현영역이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소재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재질과 특성을 가진 소재들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부조적 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소재 표현의 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의상이 조형예술로써 갖는 창조적 표현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로 다양한 형태와 색채, 문양 등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지닌 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수공예적인 기법과 자연미를 접목시킨 조형 예술의상이 실용성과 예술적 가치를 겸비한 한 단계 발전된 예술의상으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미학연구회, <미학>, 서울:문영사, 1983
- 정재동, <우리나라 야생란>, 전원문화사, 1993
- 정한원, <자연과 蘭>, 오성출판사, 1999
-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경문사, 1993
- 최영전 외, <가정원예백과> No.6 , 아카데미사, 1994
- 카라사와고무지, <서양란백과>, 전원문화사, 1994
- 편집부 편, <서양란>, 홍신문화사, 1995
- H.리이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서울:을유문화사, 1969
- Barbara Cattaneo & Veronique Vienne , velvet , London : Thames and Hudson,
- Dale, J.S, Art to Wear, N.Y: Abbeville Press Publishers Inc, 1986
- Design From Scandinavia No.16, 17, Denmark: World Pictures, 1988,1990
- Robert Warner. B, <The Orchid Album>, 大日本畫報, 1985
- The Guild 7,8,9. WI : Kraus and Sikes Inc, 1992, 1993, 1994
- 高橋勝雄, <Wild Orchids of Japan>, 毎日新聞社, 1992
- Book Moda No.29, 32, 39
- Fashion News Vol.38
- Mode et Mode No.300, 306, 307, 308
- 광미지, <꽃의 이미지를 응용한 조형의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신원선, <자연의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영숙, <자수기법을 이용한 디자인 -꽃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정혜영, <비즈 장식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꽃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차현화, <섬유소재를 통한 직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 Design through
Perception of the Natural Beauty
- Concentrating on the Orchid Motif -

Hyun-Joo, Park*

*Dept. of Fashion
Design, Chosun
University Lecturer

The orchid has a very elegant color and various forms in the nature or the ground for human life and the mother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ress some creative formative art by using the orchid as motive, and thereby, suggest the possibility of an artistic modern costume design by reviewing the texture of the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the orchid with diverse forms and colors can be used as design motive in almost infinitely diverse ways, and that all the artificial forms or structures contain the elements of natural beauty.

Second, the luxurious and rich sense of orchid's color can be maximized by using the complementary contrast effect of the dyeing technique and the color gradation effect through harmony among similar colors.

Third, a high value-added costume can be created to meet modern men's aesthetic desire by using such embroidery techniques as crochet, weaving, dyeing, beads embroidery and art flower.

Fourth, different effects of texture can be rendered by using different materials of various textures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creative expression for costume as formative art can be enhanced by expanding the expressions of the materials.